

전남도민 수익 공유 '도민발전소' 추진

2022년까지 100MW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내년 3곳 우선 완공...지역민 소득증대 등 기대

전남 도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태양광 발전소인 '도민발전소'가 조성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0MW 규모의 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민발전소를 추진한다.
국·공유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전기사업·개발행위 허가 후, 발전소 지역 주민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설

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촌산단 주차장(2MW)·영광 백수(1MW)·나주 저류지 등이 우선 사업 대상지이며 내년 말 완공을 목적으로 내년 초 주민 공모를 시작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개발공사·외부 전문가·금융기관 등과 함께 도민발전소 설립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한다.
발전소 사업에 도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발전소운영사로 전남개발공사 주도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질적 주민 소득 증대 효과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목적법인은 주민 참여 시 자금을 조달하는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립한다.
지역 주민 공모·지원 자격(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공모 금액(최고 투자금액 1,000만원)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도민발전소가 도민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신남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시군까지 확대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도, 가축재해 보험가입비 추가지원

전남도는 15일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당초 700농가 21억에서 1,400농가 42억으로 확대해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과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전남지역 축산농가 가운데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소급해 보험 가입비의 75%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를 농가당 300만원 수준에서 보조 지원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5곳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정근산 기자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오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4회 전라남도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에서 시상상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 보완 우선"

김문수 도의원, 'PLS 시행 유예' 건의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가 내년 도입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 유예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김문수(신안1)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 유예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연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고 연말까지

보완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며 "소면적 재배작물의 등록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등 명확하고 현실적인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의 목록을 정해 기존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건의안은 정부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PLS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게 미칠 파장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건의안은 정부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최근 3년간 국비 799억 반납

이정환 시의원 "촘촘한 운용 필요" 지적

광주시가 지난 3년간(2015~2017년) 반환한 국비가 7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이정환(광산구5) 의원은 15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3년간 광주시의 국비 반납 사업은 총 531건, 반납액은 799억원이라고 밝혔다.
2015년 178건, 154억원(반납율 1.3%), 2016년 164건, 161억원

(1.3%), 2017년 189건, 482억원(3.8%)이었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반납한 국비 사업은 총 54건, 693억원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많은 노력과 관심 속에 확보된 국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돼야 하고,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계획·집행함으로써 당초 예산액의 목적에 기여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에 대해 "2017년에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저비용 고효율로 치르면서 정산 시 발생한 267억원을 추가 반납하면서 상대적으로 반납액이 일시 증가했다"면서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기에 요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을 시행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태풍 '콩레이' 피해액 105억 잠정 집계 완도 등 양식장 집중...정부 합동조사 착수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로 인한 전남 피해액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섰다.
15일 전남도의 태풍 콩레이 피해 상황 집계 따르면 전남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사유시설 72억원 공공시설 33억원 등 모두 1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태풍피해는 양식어가에 주로 발생했는데 완도의 전북 4,776칸이 파손돼

58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홍합 978줄(여수)·굴 3,961줄(여수·고흥)·김 1만9,014척(해남·완도·진도·신안)·가리비 222줄(고흥) 등이 손해를 입었다.
양식어가 피해규모는 잔재물을 제거하고 확인 과정을 거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농경지 침수·도복 피해 1,778ha, 비닐하우스 47동 파손, 사과 재배농 13농

가 11ha·배 재배농 15농가 43ha에서 낙과 등의 피해를 봤다.
가로수 282건·가로등 2건 등 모두 282건의 도로시설물 피해도 접수됐다.
전남도는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입력 기간을 종료했지만, 사유시설 피해 상황 입력 기간은 19일까지 연장했다.
태풍 콩레이 피해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도 이날부터 시작했다.
중앙조사반 11명과 전남도지원 인력 10명으로 이뤄진 조사반은 완도 등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정근산 기자

수영대회 조직위, 입장권 판매 '잔결음'

가격·경기일정 안내문 발송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해외 도시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조직위는 15일 이달 중 중국·일본 내 한국대사관·영사관 등 20곳과 광주·전남·전북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광저우시, 일본 센다이시 등 25곳에 입장권 가격과 경기일정 등을 담은 홍보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8개 해외 한인체육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국내 문화예술단체와 교류 중인 중·일·동남아·유럽 결연단체에도 입장권 판매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VISA발급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수영대회입장권은 개·폐회식과 각 종목별 경기에서 모두 42만매가 발행될 예정으로, 판매수입은 75억 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80%는 국내에서, 20%는 해외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입장권 가격은 평균은 3만6,000원으로 최저 1만원에서 최대 15만원 수준이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세계 5대 메가스포츠대회의 하나인 수영대회에 많은 외국인이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입장권과 연계해 광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여 지구촌 최대의 수영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전남농업박물관 수확 체험행사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오는 20일 농업테마공원 일원에서 가족단위 참가 신청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 가을 들녘 수확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선 농업테마공원에 조성된 벼 재배단지 2만 7,700㎡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벼를 낮으로 직접 베어 전통 탈곡기를 이용해 벼 이삭을 탈곡하는 체험까지 해볼 수 있다.
농업테마공원에 조성된 벼 재배단지는 우렁이 친환경농법을 적용해 벼탈곡 체험 이후 우렁이를 직접 보고 잡는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365 DAYS HOLE IN ONE EVENT

엑스페론골프 가입(무료)만 하면 천만원 출원금 상금 대상!

출원금 이벤트

엑스페론골프 어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하고 골프장, 스크린 라운드 전 일정 등록하면 **1,000만원 출원금 행운**이 내게로 온다!

무료회원 혜택

- 365일 출원금 이벤트
- 골프장부킹
- 국내/해외투어
- 골프용품
- 커뮤니티

회원가입

안드로이드 구글스토어에서 "엑스페론" 검색
 애플 앱스토어에서 "엑스페론" 검색
 모바일 주소: <http://mall.xperon.co.kr>
 특허: 100070667